2020
10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월간리포트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SUMMARY

발행안내

- 본 리포트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 (www.kopis.or.kr)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통계 및 사례연구 보고서입니다.
- 기준 시점까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제공된 데이터에 한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준 일시 : 2020년 11월 6일(금) 13:00)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통계수치는 전송처 연계 진행상황 및 조회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20년 9월부터 공연예술 지원 정책 개발 및 공연사업 기획 관점에서의 정보 제공 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연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 예매수 TOP5는 유료 예매 수를 기준으로 하며, 개별 공연의 매출액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본 리포트 관련 문의사항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사업본부 공연정보지원팀 (☎02-2098-294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 분석 총괄: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차경천 교수(kccha@dau.ac.kr)

장르구분

장르	세분류
연극	배우가 각본에 따라 말과 동작으로 관객에게 보여주는 무대 예술 - 연극, 음악극, 마당극(마당놀이), 인형극, 창극, 마임
뮤지컬	현대화된 음악극으로 음악, 노래, 무용을 결합한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대규모 종합 무대 예술 - 뮤지컬(뮤지컬콘서트, 매직컬), 악극, 가무극, 넌버벌 퍼포먼스(미디어)
클래식	서양의 고전음악 및 해외 전통음악 - 기악(가곡), 성악(오라토리오)
오페라	모든 대사를 성악으로 표현하며 무대에서 극으로 이루어지는 종합 무대 예술
무용	음악에 맞추어 율동적인 동작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 - 현대무용, 한국무용(한국전통무용), 발레
국악	'한국음악'의 준말로서, 한국에 뿌리를 둔 음악, 또는 한국적 토양에서 나온 음악 - 기악, 성악(소리꾼이 한 명인 판소리, 민요 등), 연희/혼합(풍물, 연희, 농악, 판굿 등)
복합	두 가지 이상 장르가 혼합된 공연

※ 본 리포트는 대중음악 장르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유DB 현황

공연DB	공연시설DB	기획제작사 DB
32,956건	1,374건	4,662건

CONTENTS

Ⅰ. 공연통계

1. 2020년 10월 개요
2. 월별 예매수 및 매출액
3. 장르별 공연 건수
4. 장르별 예매 수
5. 장르별 매출
6. 지역별 매출
7. 지역 및 장르별 추정된 티켓당 가격의 중앙값
8. 장르별 좌석점유율의 중앙값
9. 장르별 공연횟수당 매출의 중앙값
10. 장르별 공연횟수당 매출의 수정된 변동계수

Ⅱ. 사례연구: 뮤지컬 <킹키부츠>와 연극< 히스토리보이즈>의 예매 수 비교

Ⅲ. 기고문: '뮤덕'의 소비행태 분석(글: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김인혜 박사)

Ⅳ. 10월 장르별 예매수 TOP5

Ⅰ. 공연통계

1) 2020년 10월 개요

- 전국적으로 9월 중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함에 따라 10월 중순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으나, 다시금 10월 말 산발적인 지역발생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장마와 태풍 등 날씨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치는 2020년 초부터 시작된 공연시장의 위축을 심화시키고 9월 시장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10월에는 청명한 가을 날씨와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공연시장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 주요 계절 특성
  - 추석 및 개천절 연휴(10/1(목)~10/4(일), 총 4일)
  - 한글날 연휴(10/9(금)~10/11(일), 총 3일)
  - 공휴일 수 총 12일(토요일 포함)
- 기후조건 출처: 기상청 날씨누리(https://www.weather.go.kr/weather/climate/past_table.jsp)
  - 서울 평균기온 14.3 (℃) [2020년 9월 24.4(℃)] ▼ 10.1 ℃
  - 서울 월 강수량 0mm [2020년 9월 181.5mm] ▼ 181.5mm
  - 강수량이 거의 없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였음.

2) 월별 예매수 및 매출액

● Point

- 2020년 10월 공연시장은 9월 대비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 예매수는 전년 동월 대비 71% 감소하였으나, 직전월 대비 145% 증가하였고
-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59% 감소하였으나, 직전월 대비 77% 증가하였다.

그림1. 월별 예매수와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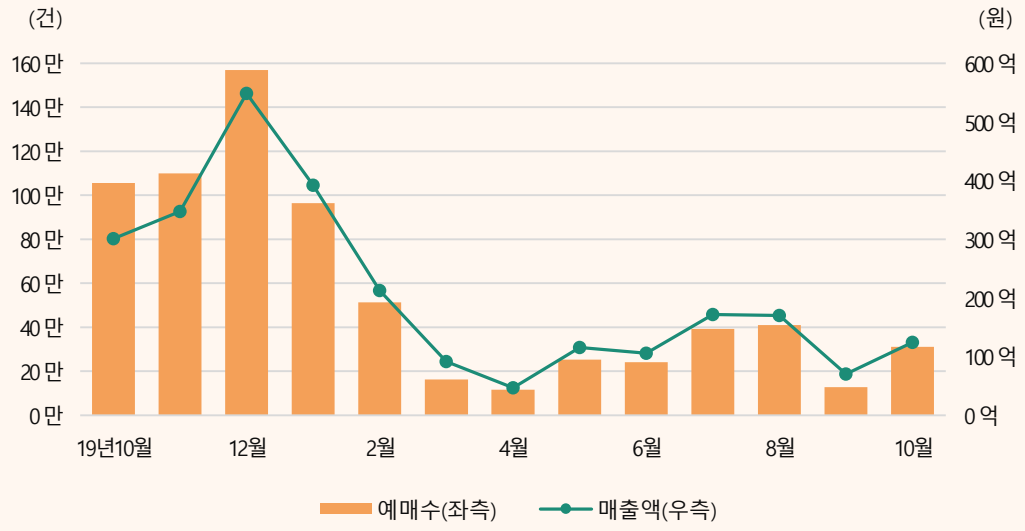


표1. 월별 예매수와 매출액 추이

월	예매수(건)	매출액(천원)	공연건수
19년 10월	1,056,259	30,118,698	1,523
11월	1,099,884	34,742,824	1,585
12월	1,569,080	54,851,173	1,571
20년 1월	964,415	39,204,858	698
2월	513,391	21,248,499	545
3월	162,267	9,132,348	181
4월	116,859	4,694,098	181
5월	253,606	11,555,385	351
6월	241,027	10,555,118	468
7월	392,203	17,170,706	604
8월	409,507	17,013,267	815
9월	127,314	7,020,816	364
10월	311,491	12,454,322	769

3) 장르별 공연 건수

- Point
  - 2019년 10월과 비교하여 2020년 10월 기준 장르별 공연 건수는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직전월과 비교하면 모두 증가하였다.
  - 뮤지컬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 직전월 대비 68% 증가 추이를 보였다.

그림2. 장르별 공연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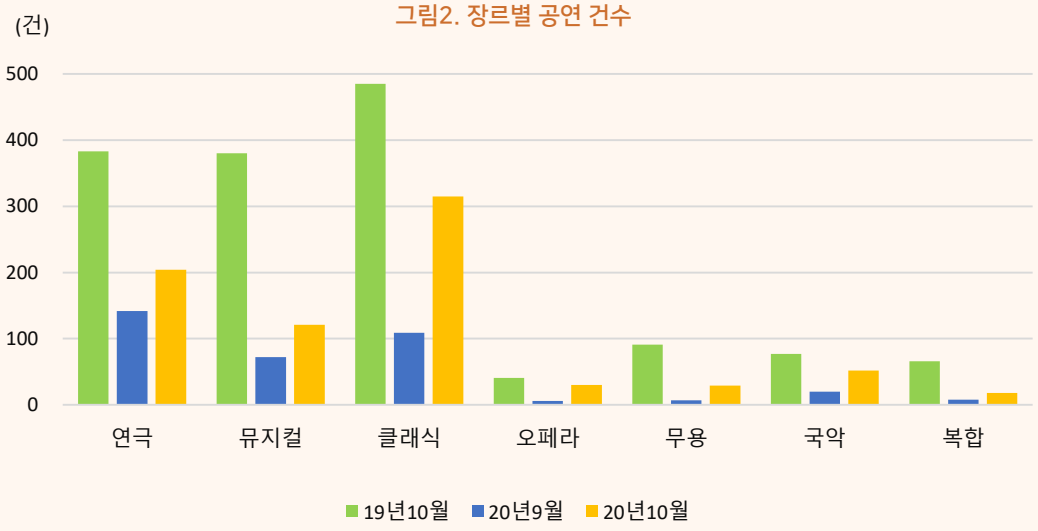


표2. 장르별 공연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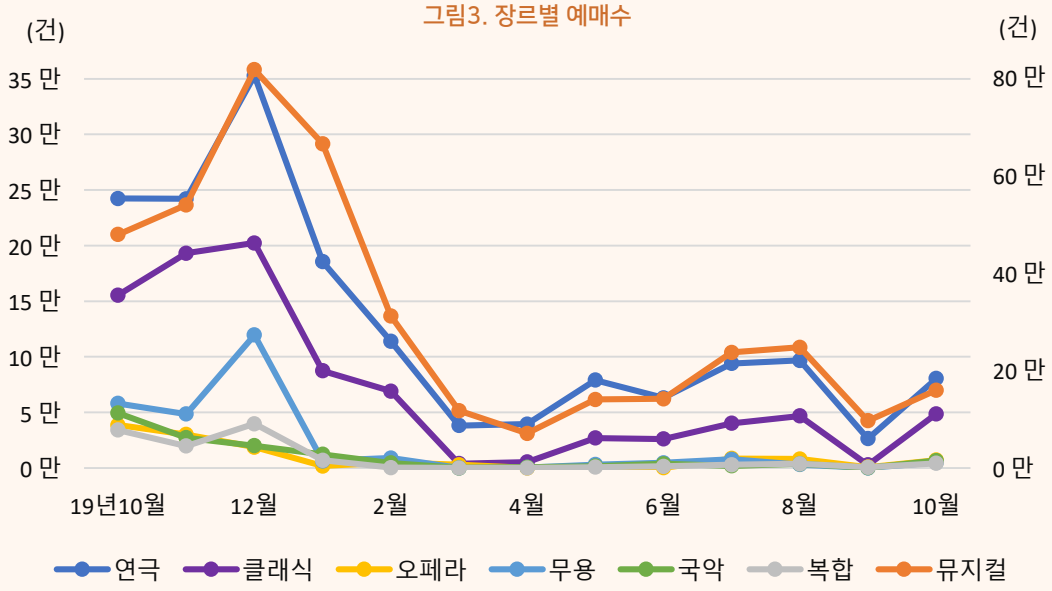
월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복합
19년10월	383	380	485	41	91	77	66
20년 9월	142	72	109	6	7	20	8
20년10월	204	121	315	30	29	52	18

4) 장르별 예매수

● Point

- 장르별 예매수는 2020년 전반에 걸쳐 대폭 하락하였으나 4월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9월에 비해 10월은 전반적으로 예매수가 증가하였다.
- 장르별 작년 10월 대비 예매 수준을 살펴보면 뮤지컬 예매수가 67% 감소하였으나, 직전월 대비 65% 증가를 보였다.

그림3. 장르별 예매수



※ 뮤지컬은 타 장르에 비해 예매수 규모가 크므로 우측의 보조 축을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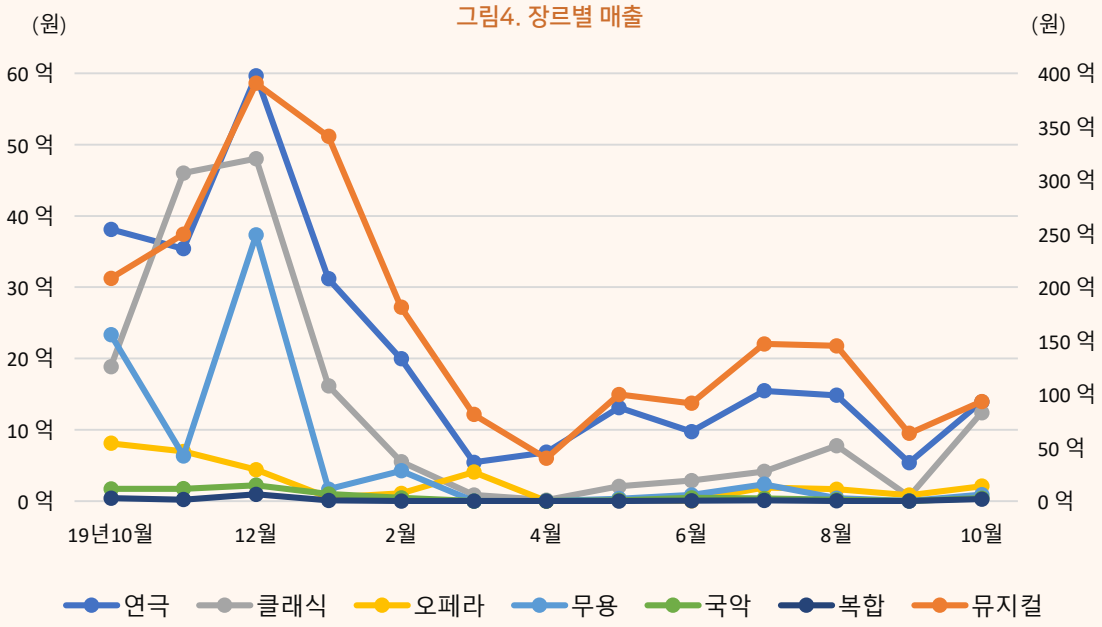
표3. 장르별 예매수 추이

월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복합
19년 10월	242,268	478,262	155,475	38,661	58,096	49,343	34,154
11월	242,089	538,914	193,139	30,176	48,466	27,306	19,794
12월	352,869	815,767	202,340	18,734	119,600	20,051	39,719
20년 1월	185,446	664,210	87,383	1,730	6,433	12,213	7,000
2월	113,968	311,311	69,174	5,074	9,016	4,501	347
3월	38,111	117,268	3,938	2,893	5	30	22
4월	39,428	70,957	5,331	0	538	602	3
5월	79,050	140,282	26,923	1,895	3,135	1,601	720
6월	63,081	141,810	26,154	179	4,579	3,794	1,430
7월	94,052	236,853	40,204	8,531	7,835	1,859	2,869
8월	96,765	247,337	46,797	8,095	3,011	3,727	3,775
9월	26,419	96,663	2,751	722	11	134	614
10월	80,455	159,390	48,685	7,062	4,932	6,725	4,242

5) 장르별 매출

- Point
  - 매출액 또한 예매수와 마찬가지로 작년 대비 급감하였으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 뮤지컬 매출액은 작년 동월 대비 55% 감소하였으나, 직전월 대비 47% 증가하였다.

그림4. 장르별 매출



※ 뮤지컬은 타 장르에 비해 매출액 규모가 크므로 우측의 보조 축을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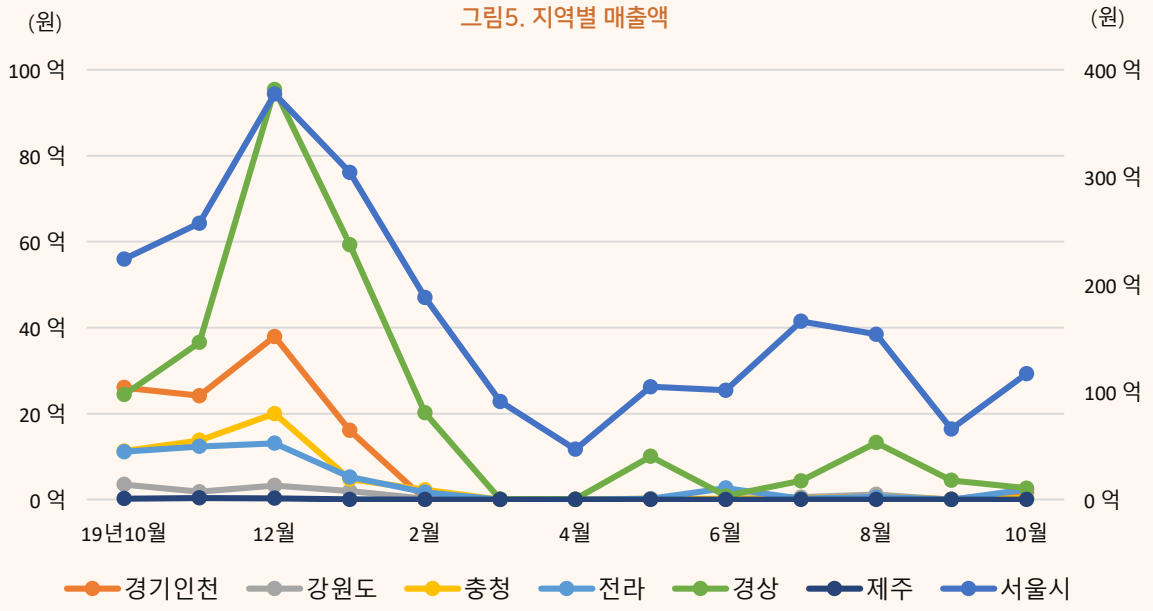
표4. 장르별 매출액 추이 (천원)

월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복합
19년10월	3,812,111	20,829,934	1,885,204	809,437	2,333,363	171,699	276,950
11월	3,540,468	24,959,084	4,601,891	695,921	633,058	172,144	140,257
12월	5,964,611	39,063,205	4,803,385	440,732	3,731,718	222,473	625,050
20년1월	3,117,823	34,095,291	1,615,172	50,492	165,091	99,451	61,538
2월	1,994,225	18,122,939	551,945	108,055	424,707	44,879	1,750
3월	543,948	8,096,401	84,574	407,110	50	265	0
4월	683,517	3,995,135	13,012	0	2,414	0	21
5월	1,310,719	9,964,193	207,313	19,125	34,235	12,170	7,631
6월	975,048	9,135,142	287,605	3,743	86,129	44,180	23,273
7월	1,546,837	14,691,953	415,029	187,931	234,900	36,790	57,267
8월	1,482,556	14,513,743	776,517	166,807	41,493	17,831	14,321
9월	538,703	6,323,902	66,113	83,931	180	1,532	6,457
10월	1,390,862	9,311,475	1,239,783	208,153	88,938	40,445	174,666

6) 지역별 매출

- Point
  - 지역별 매출액 역시 2020년 전반에 걸쳐 하락하였으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 서울 지역의 공연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작년 10월 대비 48% 감소하였으나, 직전월 대비 79% 증가하였다.

그림5. 지역별 매출액



※ 서울은 타 지역에 비해 매출액 규모가 크므로 우측의 보조 축을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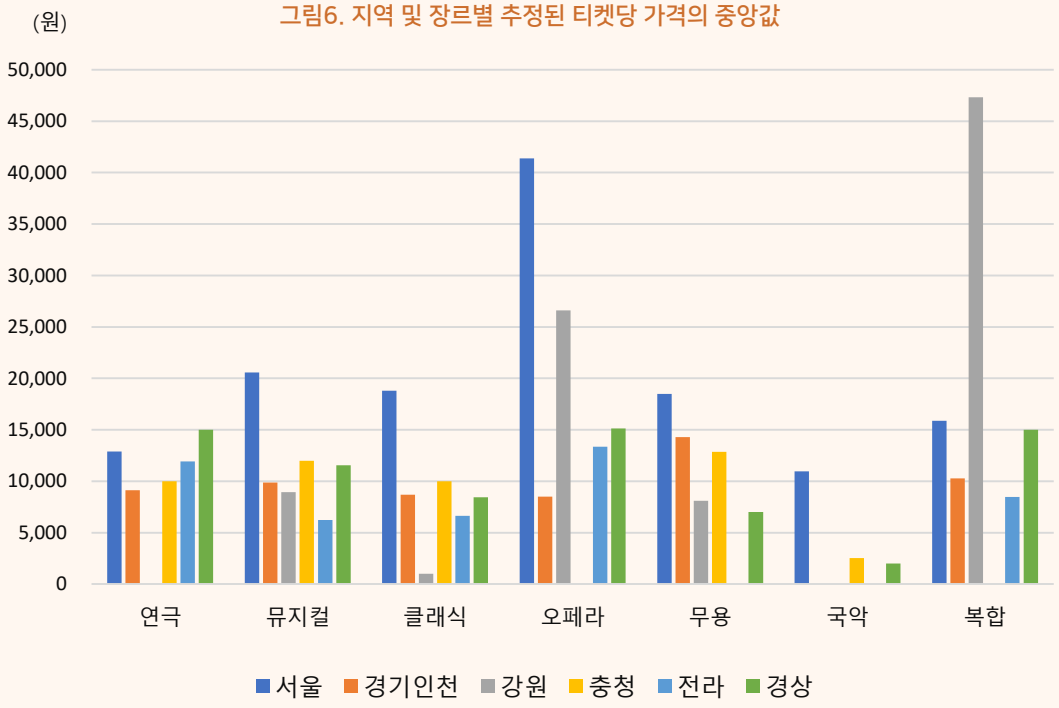
표5. 지역별 매출액 추이 (천원)

월	서울시	경기/인천	강원도	충청	전라	경상	제주
19년10월	22,387,850	2,605,827	349,789	1,127,422	1,114,163	2,441,924	91,724
11월	25,718,475	2,417,538	181,095	1,378,489	1,236,407	3,657,447	153,374
12월	37,753,719	3,794,999	326,426	1,999,598	1,310,753	9,542,172	123,506
20년1월	30,449,519	1,608,652	196,751	476,289	523,828	5,931,112	18,708
2월	18,803,611	8,882	19,221	228,022	171,692	2,016,701	371
3월	9,125,181	62	0	0	1,255	5,850	0
4월	4,674,819	4,136	0	3,267	0	11,540	336
5월	10,495,095	6,178	8,979	20,141	20,049	1,004,253	691
6월	10,164,615	2,017	10,017	23,353	267,791	86,855	472
7월	16,590,372	31,956	57,308	32,478	22,818	435,190	586
8월	15,378,222	54,603	119,563	68,930	64,775	1,326,639	536
9월	6,560,914	8,528	0	5,332	741	445,303	0
10월	11,717,810	164,917	29,705	38,771	239,471	263,648	0

7) 지역 및 장르별 추정된 티켓당 가격의 중앙값

- 각 공연의 티켓 매출액을 예매수로 나누어 해당 지역의 티켓당 가격을 추정하였다. 이를 장르별로 분류하고, 지역별로 비교하여 지역별 티켓 가격의 격차를 확인해볼 수 있다.
- 제주는 2020년 10월 공연 실적이 없어 제외되었다.
- 이와 같이 추정된 티켓당 가격 통계는 최고값, 최저값, 평균값, 중앙값 등을 통계정보의 대표값으로 삼아 살펴볼 수 있다. 공연별 매출액의 격차가 심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소수의 공연 실적 데이터가 전체의 평균을 올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표6, 표7 참조)
- 중앙값이란 주어진 값들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값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값들의 편차가 심할 경우 중앙값이 평균값보다 유용하다.

그림6. 지역 및 장르별 추정된 티켓당 가격의 중앙값



- Point
  - 추정된 티켓 가격의 중앙값을 장르별로 비교해보면 오페라가 가장 높았다. (강원 지역 복합 장르에서 최대값 47,333원이 나타나나, 이는 패키지 공연 한 건의 판매 건이 집계된 것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 또한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장르에서 서울의 추정된 티켓당 가격의 중앙값이 가장 높았고, 그 격차는 최소 약 1.2배에서 최대 약 18배까지 벌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서울의 공연장 대여료가 지방보다 높은 점, 서울에 문화 인프라가 집중되어 인건비 등 한 공연 당 인건비 등 제작 비용이 집중된다는 점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 추정된 티켓 가격의 평균값을 표7에 표기하였다. 표6의 중앙값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평균값이 중앙값보다 높고 그 차이는 최대 약 2.3배까지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수의 고가 공연을 포함하여 높아진 평균값은 전반적인 공연 가격을 대표할 만한 통계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본 리포트에서는 중앙값을 비교하는 것을 권장한다.

표6. 지역 및 장르별 추정된 티켓당 가격의 중앙값

지역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복합
서울	12,890	20,571	18,812	41,377	**18,490**	10,965	15,878
경기인천	9,126	9,866	8,703	8,488	14,285		10,263
강원		8,944	1,000	26,593	8,100		47,333
충청	10,000	12,000	10,000		12,865	2,534	
전라	11,930	6,245	6,646	13,345			8,469
경상	15,000	11,550	8,434	15,114	7,000	2,000	15,000

표7. 지역 및 장르별 추정된 티켓당 가격의 평균값

지역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복합
서울	13,974	29,489	19,840	54,588	**42,373**	13,061	24,106
경기인천	9,169	12,462	12,713	8,488	12,776	1,079	10,716
강원		8,768	2,130	26,593	8,100		47,333
충청	11,397	11,433	12,291		13,340	2,534	
전라	12,874	9,840	7,554	13,345	1,667	3,417	6,048
경상	13,025	12,468	13,603	19,669	7,238	4,205	15,000

8) 장르별 좌석점유율의 중앙값

- 좌석점유율 = $\frac{\text{예매수}}{\text{공연횟수}\times\text{공연장 좌석 수}}$
- 좌석점유율은 공연 주체의 수익성 목표달성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척도이다.
- 흥행에 성공한 공연은 좌석점유율이 100%에 가깝다.(매진 공연을 의미함.)
- 소수의 흥행한 공연 실적이 전체의 평균을 올려 발생할 수 있는 해석의 오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장르별 좌석점유율은 중앙값을 대표 값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 중앙값이란 주어진 값들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값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값들의 편차가 심할 경우 중앙값이 평균값보다 유용하다.(표8 참조)
- 작년 동월, 직전 월, 해당 월 3가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 Point
  - 장르별 좌석점유율은 작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 뮤지컬 좌석점유율의 경우 작년 10월과 비교하여 14% 감소하였으나, 직전 월 대비 482% 증가하였다. (중앙값 2% -> 11.8%)

그림7. 장르별 좌석점유율(중앙값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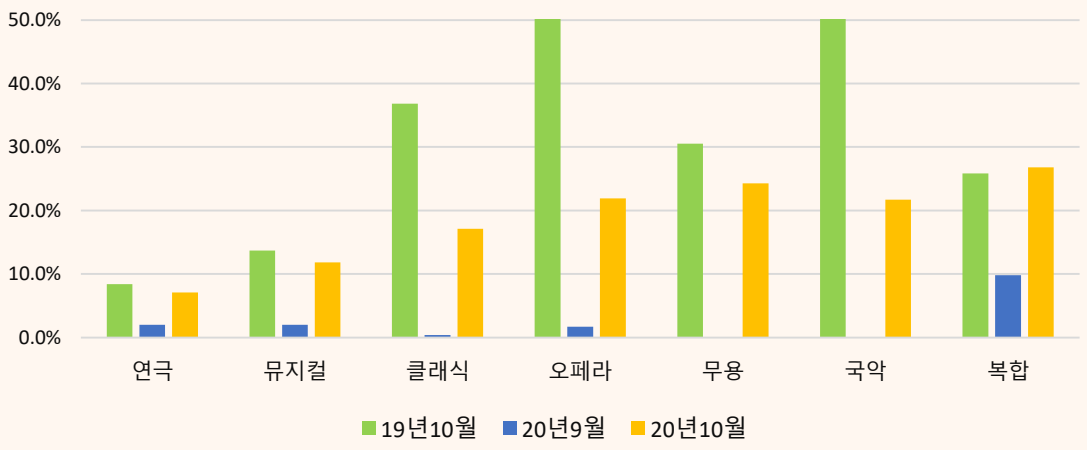


표8. 장르별 좌석점유율 추이(중앙값 기준)

월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복합
19년 10월	8.4%	13.7%	36.8%	61.9%	30.5%	50.2%	25.9%
20년 9월	2.0%	2.0%	0.4%	1.7%	0.0%	0.0%	9.8%
20년 10월	**7.1%**	**11.8%**	17.1%	21.9%	24.3%	21.7%	26.8%
20년 10월 (*평균)	**13.0%**	**22.3%**	22.2%	24.0%	21.1%	21.1%	26.7%

※ 장르별 좌석점유율을 평균치로 계산할 경우 연극·뮤지컬 장르는 중앙값과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가 큰 경우는 데이터 중 소수의 이상치(Outlier,평균 데이터와 크게 다른 데이터)로 인해 평균이 왜곡되어 대표값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9) 장르별 공연 횟수당 매출의 중앙값

- 장르별로 한 작품의 공연 횟수에 큰 차이가 있다. 연극이나 뮤지컬은 여러 회를 공연하나, 클래식, 오페라 등 그 외 공연은 1회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 장르별 매출보다는 공연 횟수당 매출을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중앙값이란 주어진 값들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값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값들의 편차가 심할 경우 중앙값이 평균값보다 유용하다.
- Point
  - 장르별 공연 횟수당 매출의 중앙값을 살펴보면 공연 장르별로 매출액 편차가 극심함을 알 수 있다. '7. 지역 및 장르별 추정된 티켓당 가격의 중앙값'에서 티켓 가격이 높게 추정된 오페라의 경우 회차는 적으나 공연 횟수당 매출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장르별 매출액은 뮤지컬 장르가 가장 높으나 공연 횟수당 매출액의 중앙값으로는 클래식, 국악, 무용 등의 장르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작년 10월 대비 올해 10월의 장르별 공연 횟수당 매출의 중앙값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직전월과 비교하면 점차 회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특히 공연 횟수당 매출의 평균값과 중앙값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매우 크다. 20년 10월의 뮤지컬 공연 횟수당 매출을 예로 들면, 평균값은 3,244(천원)이나 중앙값은 187(천원)에 불과해 공연별로 매출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8. 장르별 공연 횟수당 매출의 중앙값(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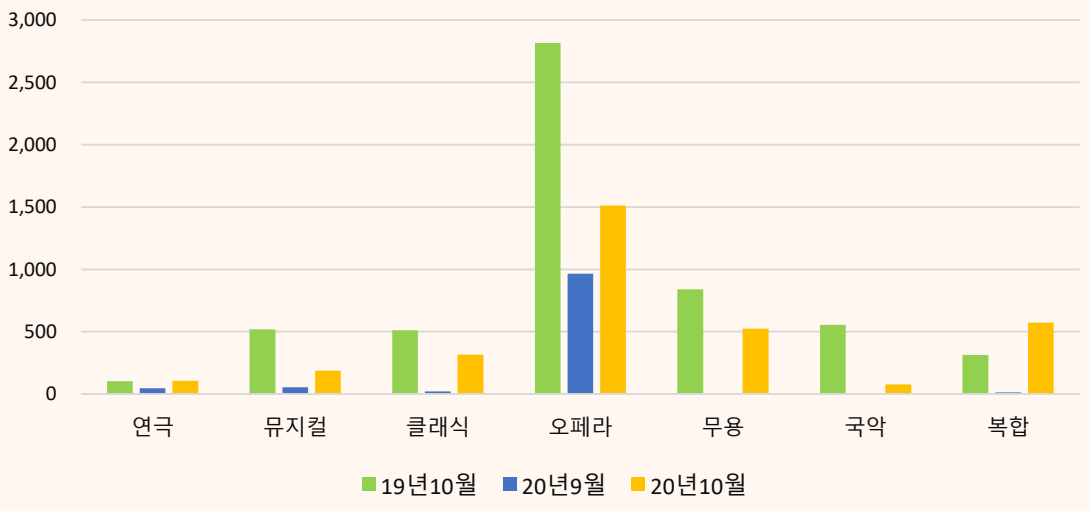


표9. 장르별 공연횟수당 매출의 중앙값 추이 (천원)

월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복합
19년 10월	103	519	510	2,816	840	556	314
20년 9월	46	55	20	965	0	0	14
20년 10월	106	**187**	316	1,513	523	77	572
20년 10월 (*평균)	409	**3,244**	3,311	4,263	1,918	434	9,109

10) 장르별 공연 횟수당 매출의 수정된 변동계수

- 변동계수란 표준 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누어 구한 것으로, 서로 다른 장르 간 편차를 비교하기 위해 계산한 값이다. 본 리포트에서는 공연별 격차가 심한 흥행 성과를 보정하기 위해 평균 대신 중앙값을 사용하여 수정된 변동 계수를 계산하였다.
- 공연 횟수당 매출액의 수정된 변동계수 = $\frac{\text{표준편차}}{\text{중앙값}}$
- 수정된 변동 계수의 값을 해석하면, 특정 장르의 변동 계수 값이 클수록 그 장르 내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변동 계수의 값이 큰 장르는 각 공연들의 매출 차이가 크며, 변동 계수의 값이 작은 장르는 매출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 Point
  - 뮤지컬의 경우 공연시장에서 매출액 총액이 가장 높으나, 변동계수 또한 높다. 이는 흥행에 성공하는 작품과 그렇지 못한 작품 간의 공연 횟수 당 매출액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 작년 10월과 비교하여 올해 10월에는 뮤지컬, 클래식과 더불어 복합 장르에서 변동계수가 증가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시장이 침체되면서 전반적으로 작품 간 편차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직전월에 비해 올해 10월의 변동계수가 낮아진 것은 공연 시장 매출이 직전월에 비해 회복세를 보임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9. 장르별 공연 횟수당 매출의 수정된 변동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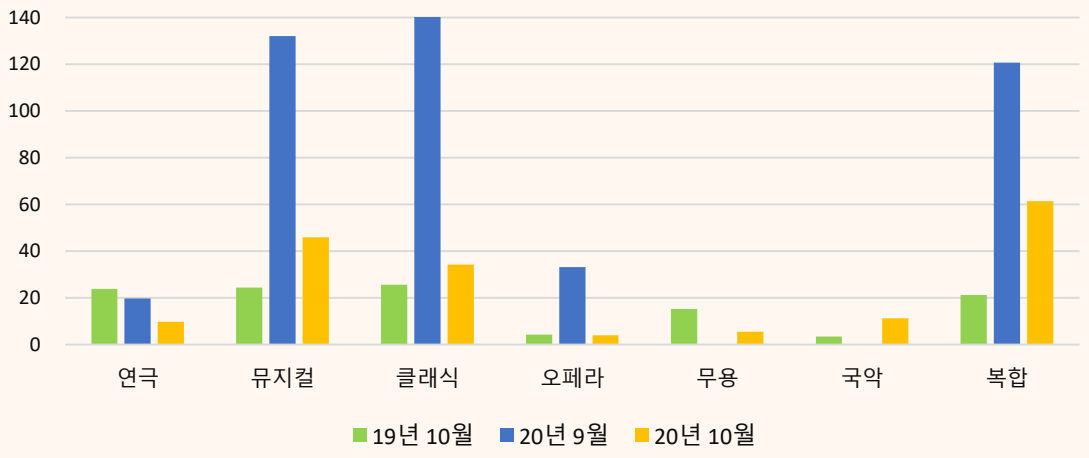


표10. 장르별 공연 횟수당 매출의 수정된 변동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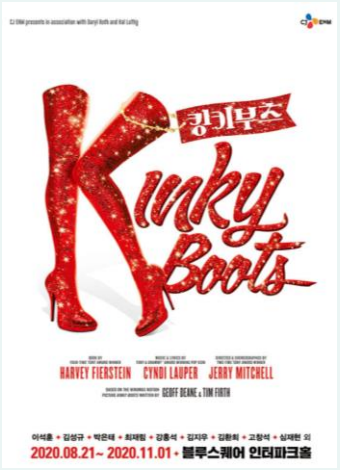
월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복합
19년 10월	23.803	24.424	25.703	4.253	15.302	3.444	21.296
20년 9월	19.727	132.040	158.205	33.178			120.619
20년 10월	9.811	45.973	34.277	4.045	5.485	11.279	61.438

Ⅱ. 사례연구: 뮤지컬 <킹키부츠>와 연극 <히스토리보이즈>의 예매 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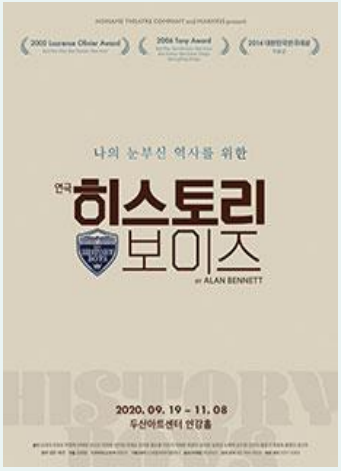
1) 뮤지컬과 연극 작품의 비교

- 2020년 9월,10월에 걸쳐 뮤지컬과 연극 장르에서 각각 최다 유료예매수를 기록한 두 작품 <킹키부츠>와 <히스토리보이즈>의 누적 예매 수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에 서로 다른 장르의 흥행성적을 비교하여 장르별 흥행 성적의 원인을 모색하고,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향후 동일 장르에서 여러 작품의 흥행성적을 비교하는 사례연구도 필요하다.

2) 공연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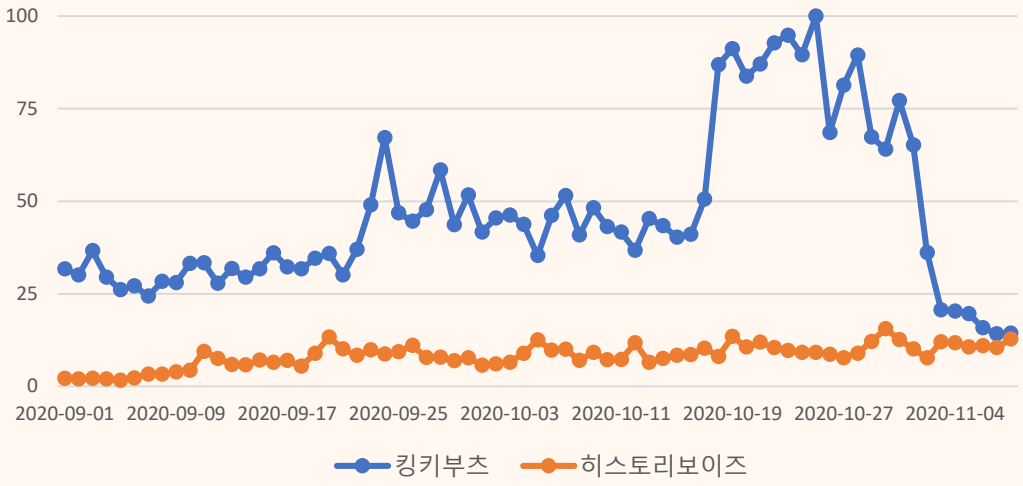


- 공연명: 킹키부츠
- 장르: 뮤지컬
- 일시: 2020년 8월 21일~2020년 11월 1일
- 장소: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서울시 용산구)
- 관람등급: 8세 이상 관람가능
- 누적 예매수: 45,027건 (2020년 11월 1일 기준)
- 공연횟수: 88회



- 공연명: 히스토리보이즈
- 장르: 연극
- 일시: 2020년 9월 19일~2020년 11월 8일
-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서울시 종로구)
- 관람등급: 13세 이상 관람가능
- 누적 예매수: 14,134건 (2020년 11월 8일 기준)
- 공연횟수: 59회

그림10. Naver Datalab의 킹키부츠와 히스토리보이즈 검색량 추세



- 그래프는 네이버 데이터랩(https://datalab.naver.com)에서 2020년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뮤지컬 킹키부츠와 연극 히스토리보이즈를 검색한 결과이다.그래프는 네이버에서 해당 검색어가 검색된 횟수를 일별/주별/월별 각각 합산하여 조회 기간 내 최다 검색량을 100으로 설정하여 상대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뮤지컬 킹키부츠의 검색량은 히스토리보이즈에 비해 매우 많고 변화폭이 큰 한편, 연극 히스토리보이즈의 검색량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

3) 성장 곡선 통계분석에 의한 누적 예매 수의 비교

- 대표적인 성장 곡선(Growth curve) 또는 확산(diffusion) 함수로 곰페르츠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누적 값으로 S자 형태를 보이며 성장하는 지표나 성과에 적용하여 마케팅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통계적 함수이다.
- 신제품이 출시된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누적 판매량을 곰페르츠 모형에 적용하면 해당 제품이 시장 수요의 도입기 및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에 이르기까지의 S자 성장곡선을 생성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제품의 총 잠재수요, 수요가 급성장하는 시점 등을 추정할 수 있다.
- 본 리포트에서는 뮤지컬 킹키부츠와 연극 히스토리보이즈의 누적 예매수를 곰페르츠 모형에 적용하여 시장 잠재 수요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수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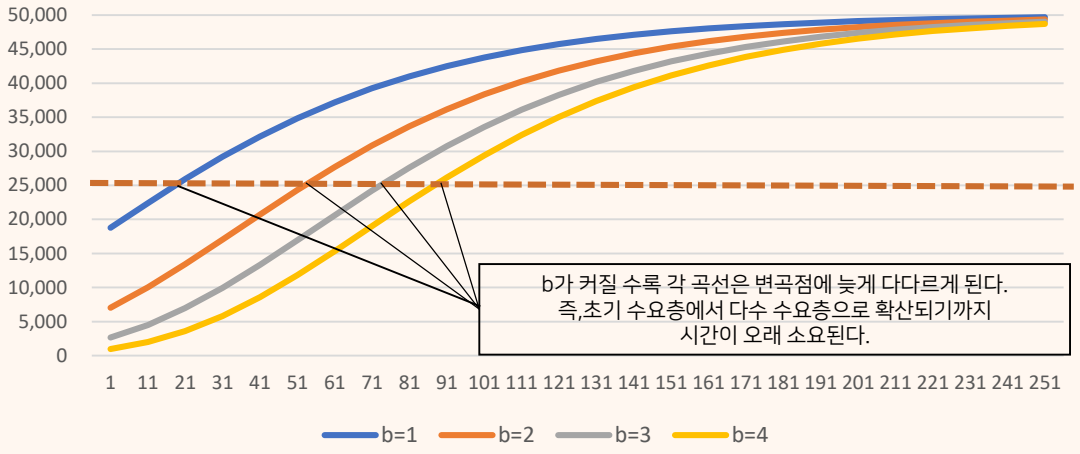
$$누적예매수_t = a \cdot e^{-b \cdot e^{-c \cdot time}}$$

- a : 공연을 무한정 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도달 가능한 최종 누적 예매 수의 예측치(시장 잠재 수요)를 의미함.
- b : 누적예매수가 변곡점에 도달하는 정도.(b가 크면 변곡점에 느리게 도달한다.)

  * 변곡점 (t(halfway)=$-\frac{\ln(\ln(2)/b)}{c}$) : 누적 예매수가 최종 누적 예매 수의 ½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 중, 조기 수용층에서 다수층의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이때 ln은 e=2.71828…를 밑으로 하는 자연로그함수. $\ln 1 = 0, \ln e = 1$)
- c : 최종 누적 예매수 a에 도달하는 성장속도에 해당함. (c가 크면 최종 누적 예매 수에 빠르게 도달한다.)
- time : 공연 회차를 연속적으로 표현한 수.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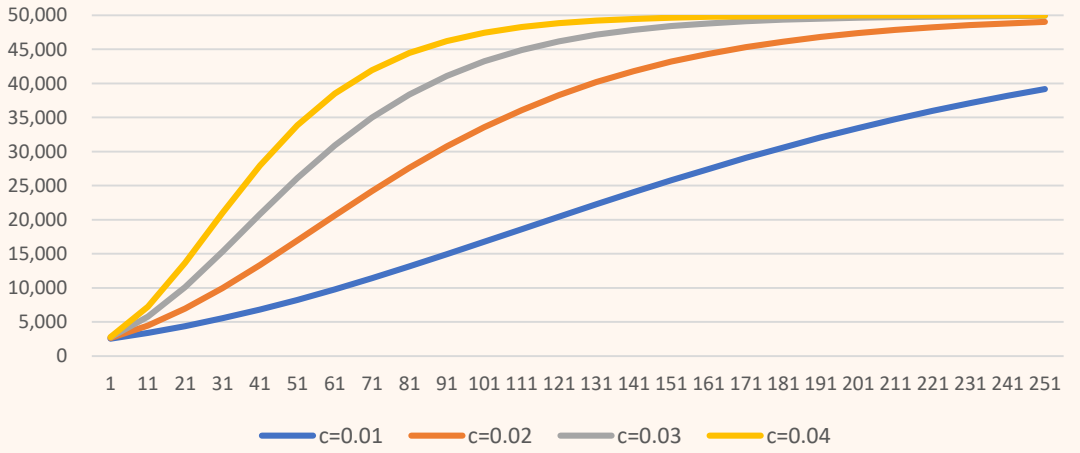
- 예로 a= 50,000, c=0.02 라 가정하였을 때, b가 커짐에 따라 최종 누적 예매수(a)의 ½인 25,000에 도달하는 시점(변곡점)이 늦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림11, 그림12의 y축은 누적 관객 수(예매 수)이고, x축은 공연 횟수를 의미한다.

그림11. 추정 계수 b의 변화에 따른 누적 예매 수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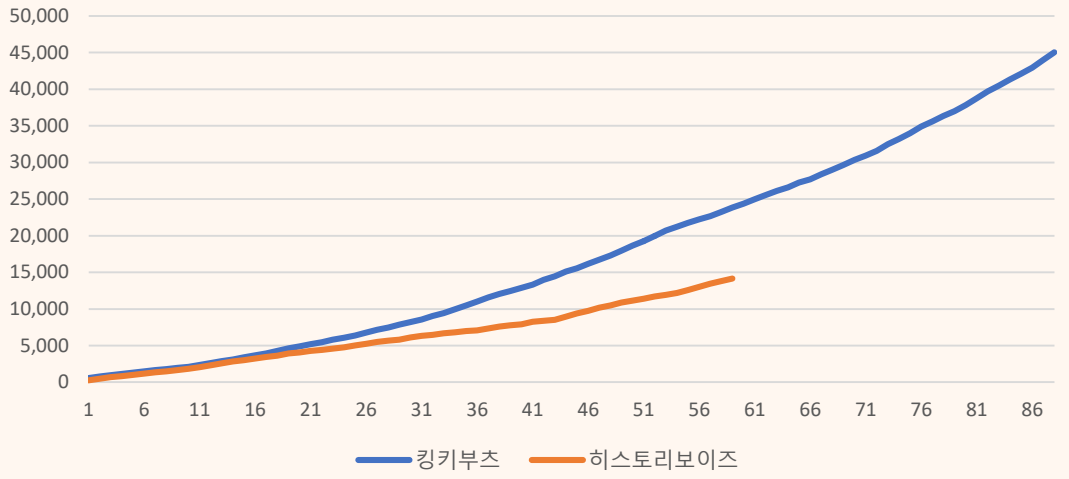
- 다른 예로 a= 50,000, b=3 이라 가정하였을 때, c가 커짐에 따라 최종 누적 예매수(a)에 빠르게 도달함을 알 수 있다.

그림12. 추정 계수 c의 변화에 따른 누적 예매 수의 확산



● 뮤지컬 킹키부츠와 연극 히스토리보이즈의 누적 예매 수 추이는 그림 13과 같다.

그림13. 킹키부츠와 히스토리보이즈의 누적 예매 수



● 해당 그래프를 곰페르츠 모형에 적용하여 도출한 추정 계수 a,b,c를 표 11에 나타내었다. 또한 추정 계수 a,b,c를 활용하여 도출한 결과값들을 표12에 나타내었다.

표11. 킹키부츠와 히스토리보이즈 누적 예매 수의 곰페르츠 모형 추정값

	킹키부츠	히스토리보이즈
a	100,032	32,370
b	4.422	3.508
c	0.019	0.024
Adj-R^2	0.999	0.992

※ Adj-R^2 은 모형의 적합도를 표현한다. 1에 가까울 수록 본 모형의 추정이 실제 누적 예매 수 추이를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표12. 킹키부츠와 히스토리보이즈 누적 예매 수의 곰페르츠 모형 추정 결과

	킹키부츠	히스토리보이즈
t(halfway)	97	68
t(max)	78	53
t(max)에서의 예매 수 증가량	700	283

※ t(halfway): 변곡점. 누적 예매수가 최종 누적 예매수(a)의 ½ 수준에 도달하는 회차.

t(max) = $\frac{\ln(b)}{c}$: 증가율이 가장 높아지는 시점(회차)

t(max)에서의 예매 수 증가량 = $\frac{ac}{e}$ (e=2.71828…)

4) 결과의 해석

- 공연을 무한정 한다는 가정 하에서 예측되는 최종 누적 예매수 a(시장 잠재 수요)는 킹키부츠(100,032)가 히스토리보이즈(32,370)보다 약 3배 정도 많다.
- 추정 계수 b값을 비교해보면, 변곡점에 도달하는 시점은 킹키부츠(4.422)가 히스토리보이즈(3.508)보다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공연을 무한히 한다는 가정 하에 킹키부츠는 97회차에 누적 예매수 50,016건에 도달할 것이고 히스토리보이즈는 68회차에 누적 예매수 16,135건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 또한 추정 계수 c값을 비교하면, 킹키부츠보다 히스토리보이즈에서 최종 누적 예매수 a에 도달하는 성장속도가 약간 더 빠르게 나타날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히스토리보이즈가 최종 누적 예매수에 더 빠르게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 예매 수 증가율이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는 시점은 킹키부츠가 78회차, 히스토리보이즈가 53회차 시점으로 추정된다.
- Point
  - 뮤지컬 킹키부츠는 연극 히스토리보이즈보다 최종 누적 예매수가 3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변곡점(초기 수요가 다수 수요층에게 확산되는 시점)에 도달하는 공연 회차가 다소 늦고, 또한 최종 누적 예매 수에 도달하는 속도 또한 더 느리다.
  - 이에 뮤지컬 킹키부츠의 측면에서는 누적 예매 수의 변곡점에 빠르게 도달하고, 최종 누적 예매 수가 도달하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초기 구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또한 연극 히스토리보이즈 측면에서는 최종 누적 예매 수를 늘리고, 공연 수를 무리하게 늘리지 않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수익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Ⅲ. 기고문: '뮤덕'의 소비행태 분석

뮤덕, 팬덤(fandom)을 넘어 팬슈머(fansumer)로 활약하다

열성적인 팬이 지지하는 대상이나 스타를 중심으로 모여서 이룬 무리를 팬덤(fandom)이라고 한다. 가요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팬덤은 공연예술에도 자리잡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뮤지컬의 경우 이러한 열성적인 팬이 '뮤지컬 덕후'의 줄임말인 '뮤덕'으로 지칭되고 있다. 특정 공연을 다수 관람하는 회전문 관객에서부터 전체 회차를 관람하거나 특정 배우의 모든 회차를 관람하는 전관 관객까지 뮤덕의 공연예술 소비는 뮤지컬 시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뮤지컬에 열광하는 뮤덕이 성장한 배경에는 팬덤문화를 이끌었던 세대들의 성장과 함께 사회문화적인 변화가 존재한다. 2019년 인터파크에서 뮤지컬을 예매한 소비자를 분석한 결과 30대 여성이 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예년과 유사하였다. 팬덤이 형성되던 1990년대 당시 10대 혹 20대였던 사람들이 현재 경제력을 갖춘 30대, 40대의 어른으로 성장하여 비교적 높은 가격인 뮤지컬 공연에서도 팬덤문화의 주축이 되고 있다.

팬슈머(fansumer)란?

한 대상에 일방적으로 애정을 쏟고 구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획하고 투자하고 견제하는 상호작용에 방점을 두는 매우 적극적인 팬으로서의 소비자를 지칭하는 말로『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 제안한 새로운 개념이다.

팬슈머의 활동 영역은 매우 넓다. 데뷔 전 연예인을 육성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상품에 투자하고, 기업의 상품 개발 과정에 관여하고, 서포터로서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며,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를 지지 혹은 비판한다.

소유에서 경험으로 이동한 소비 패러다임이 이제 다시 경험에서 관여로 발전하고 있다. 이 관여에 대한 열기는 선발과 양육, 기획과 제조, 유통과 홍보, 그리고 지지와 비판까지 시장의 전반적인 과정에 드리워진다.

-『트렌드 코리아 2020』p.317~318 발췌.

또한 조직에 대한 희생보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직장과 업무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여가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뮤지컬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현실과는 다른 뮤지컬의 화려한 무대와 웅장한 사운드, 회차에 따라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다른 상황 그리고 뮤지컬 배우와 관객의 호흡에서 비롯되는 생동감이 뮤덕의 심장을 뛰게 한다. 이처럼 하늘 아래 같은 공연이 없는 뮤지컬이 선사하는 매력은 뮤덕의 반복적인 소비를 유도한다.

뮤덕은 뮤지컬이 선사하는 즐거움을 향유하는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공연예술로서 뮤지컬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뮤지컬 배우의 연기, 노래, 춤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작품의 내용, 무대 설치 등 종합적인 예술에 대한 심미적 가치를 전문적으로 논하는 주체가 되었다. 뮤지컬에 대한 일방적인 애정을 쏟지 않고 공연의 수준을 저해하는 캐스팅이나 연출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음으로써 공연예술 공급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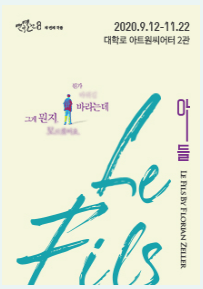
이처럼 뮤덕의 소비행태는 스타를 멀리서 동경하는 과거에서 스타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현재로 거듭나고 있다. 뮤덕은 뮤지컬에 대한 애정을 표출하고 구매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기획에 관여함으로써 공급자를 견제하는 매우 적극적인 소비자인 팬슈머(fansumer)로 활약하고 있다. 향후 뮤지컬이 공급자의 시선에서 가치를 평가받고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인 관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평가받고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공급자와 소비자가 함께 창출해나가는 공연예술로 더욱 성장하리라 기대해본다.

[글: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김인혜 박사(2020년 卒), 前 KISDI 연구원]

Ⅳ. 10월 장르별 예매 수 TO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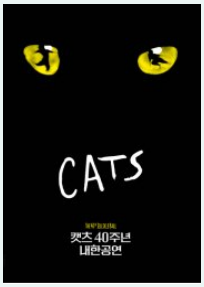
(공연일 2020년 10월, 유료예매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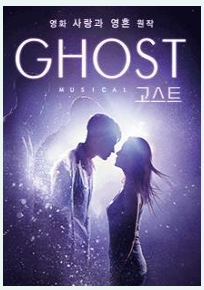
연극



1위	2위	3위	4위	5위
히스토리 보이즈	오만과 편견	옥탑방 고양이 [대학로]	쉬어매드니스 [대학로]	연극열전8, 아들 Le Fi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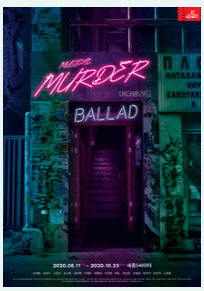
뮤지컬(대극장) * 좌석 수 1,000석 이상





1위	2위	3위	4위	5위
킹키부츠	베르테르	캣츠 40주년 내한공연 [서울]	썸씽로튼	고스트

뮤지컬(중소극장) * 좌석 수 1,000석 미만



1위	2위	3위	4위	5위
비스티	미오 프라텔로	머더 발라드	시데레우스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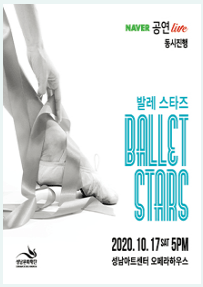
클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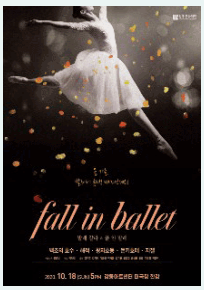
1위	2위	3위	4위	5위
포시즌 2,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광주]	사랑을 노래하다: 가을의 팬텀	김동규와 떠나는 가을 여행: 10월의 어느 멋진 날	사랑을 노래하다: 가을의 팬텀2	사랑을 노래하다: 가을의 팬텀2(앵콜)

오페라

1위	2위	3위	4위	5위
코리아 & 뮤직페스티발	피델리오	오페라카니발 [춘천]	토스카	국립오페라단과 함께 하는 가을밤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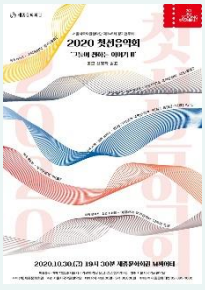
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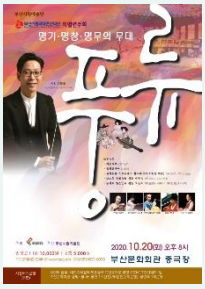




1위	2위	3위	4위	5위
동무동락-웨딩보감	발레 스타즈	제 179회 GAC목요예술무대, Cake Walk	발레 갈라: Fall in Ballet	바디 콘서트 [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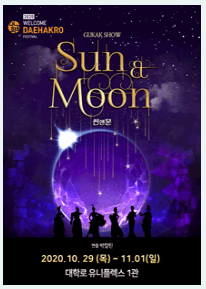
국악





1위	2위	3위	4위	5위
제6회 궁중문화축전, 궁중연화	안성맞춤 남사당공연	제345회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풍류	완창판소리 (10월)

복합



1위	2위	3위	4위	5위
코로나 극복기원 다큐·갈라콘서트 울림Ⅳ	디스이즈 잇 [군산]	웰컴대학로, 썬앤문	토요명품공연	마법의 샘